



• 한국 대표단장 개회사 •

원자력의 경쟁력 확보 모색

방 국 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사무총장

조 경하는 오야마 의장님과
사카모토 일본 대표단
단장님, 그리고 이 자리
에 나오신 한·일 양국 관계인사 여
러분.

오늘 제24회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를 맞이하여 본인이 한국 대
표단을 대표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
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
다.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는
197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어
언 20년을 넘어 금년으로 24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간 본 세미나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유익하고 내
실있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한·일 양국의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
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의 덕분
이었다고 확신하면서 여러분과 함
께 경축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 발전은
점차 긍정적으로 인식이 높아가고
있고 원전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기

대와 이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 추
진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등 원
자력산업의 부흥을 예고하고 있습
니다.

한국에서도 원자력이 인류 복지
생활의 향상과 경제 성장의 지속을
위하여 필수적인 에너지라는 인식
하에 원자력 에너지가 안전성 및 신
뢰성을 확보하면서 경쟁력에 있어
서도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고
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
전 문화의 정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 한·일 세미나
를 개최하여 일본의 원자력계 전문
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일본의 경험
을 듣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의장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현황을 말씀드리
면 2002년 현재 총 17기의 원전이
운전되고 있으며 설비 용량은 1천4
백71만6천kW로 전체 발전 설비의

약 28%, 발전량은 총발전량의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2년 8월에 확정된
「제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
라 2015년까지 현재 건설중인 발전
소를 포함하여 11기의 신규 원전이
계통에 병입될 것입니다. 단기적으
로 2005년까지 한국 표준형 원전
4기의 건설을 완료하여 총20기의
원전을 운전함으로써 원전 설비 용
량을 1천7백71만6천kW로 증대시
키고, 금명간 신고리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착수할 예
정입니다.

특히 2010년도에 1,400kW급 신
형 경수로인 APR1400의 상업 운
전 등 201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8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여 국내
전력 수요의 약 45%를 담당함으로
써 국내 주력 전력원으로서의 역할
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 신형 경수로인 APR1400 원
전은 앞으로 원전의 전력 공급 능력



을 향상시킬은 물론, 원자력 기술 개발을 일층 고도화시켜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원자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원자력 발전 분야에 비해 그 동안 저조했던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 원소 이용의 촉진과 이용 기술의 개발을 포함하여 원자력 관련 기기의 국산화에도 힘을 기울여 국내 원자력산업의 고도화를 뒷받침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원자력 협력 사업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간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기관이 증가하여 2000년 말 현재 방사성 동위원소 인허가 기관이 약 1,700개에 이르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도 약 1만 5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분야 등 비발전 산업의 규모는 원자력 공급 산업 총매출액의 9.1% 정도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중인 방사선 이용 기기 등을 대부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산업화가 활성화된다면 이 분야가 가져올 수 있는 산업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작년에 정부가

수립한 제2차 원자력 진흥 종합 계획에 따르면, 발전 분야와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등 비발전 분야의 균형있는 진흥 정책을 추진하여 단기적으로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간 이용 규모를 2006년까지 현재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증대하고, 「첨단방사선연구센터」 설립과 연계하여 방사선 기술(RT:Radiation Technology)을 이용한 의료·공업·농업·환경 및 기초 과학 분야의 연구와 상용화를 추진하며,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분배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이용의 확대를 위한 「국가방사선이용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또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와 30메가전자볼트(MeV) 싸이클로트론 등을 이용하여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공급을 확대하며,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PET) 진단을 위한 지역별 동위원소 전용 싸이클로트론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의료 서비스 기반을 구축 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첨단방사선연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NT·BT·IT 등과 연계하여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이용 기술의 고도화를 달성하며, 2010년까지 방사선 기술(RT) 관련 산업을 국가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여 비발전 분야의 매출액을 원자력 총매출액의 30% 수준으로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계는 지금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조성과 원자력 시설의 입지 확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자력계 또한 이러한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간 일부 원전 관련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산업계·정부 및 학계가 열성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원전의 안정적이고 신뢰적인 운전과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과 장래 사업을 위한 신규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일본 원자력계의 이러한 노력에 거듭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한국도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원자력산업 및 정책 결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본으로,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정책 수립, 안전 감시 활동 등에 지역 주민, 민간 단체의 참여를 확대시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과 「민간원자력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이외의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도 민간환경 감시기구를 구성·운영하면서 민간 환경감시기구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며, 원자력 연구 시설, 산업 시설, 교육 시설 등이 함께 연계되는 원자

력 파크의 구축 방안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일 양국의 대표단과 참석자 여러분!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자력계가 가일층 협력하고 단결하여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부흥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향후 원자력산업의 원활한 추진, 확대를 위해서는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와 더불어 원자력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며 이 점은 한·일 원자력계의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제24회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를 맞이하여 한·일 양국의 원자력 산업계 전문가가 모인 이 자리가 양국 공동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원자력산업의 부흥을 이루기 위한 활발한 토의의 장이 되고, 나이가 양국 원자력계의 새로운 부흥을 촉진하며 상호 협력을 공고히 다질 수 있는 뜻깊은 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일본원자력산업회의 임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

• 일본 대표단장 개회사 •

원자력의 지속 개발에 대한 사명감

사카모토 히로사토
홋카이도전력(주) 부사장

O] 번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 일본대표단장을 맡은 홋카이도전력(주)의 사카모토입니다. 개회에 앞서 인사

드립니다.

이번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일본원자력산업회의가 중심이 되어 양국

원자력산업의 정보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금년으로 24회째를 맞았습니다.

일본은 상업용 원자력발전소가